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 및 정답

- 매교시 종료 후 탑재됩니다.(중증시각장애 수험생 시험시간 기준)
- 모든 문제 및 정답은 PDF파일로 되어 있습니다.(단, 듣기 파일은 MP3파일)
- 탑재된 파일은 수험생에게 제공된 문제지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안내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허락없이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출판,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란 규범 윤리적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근본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도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관심을 갖고 생명 복제, 사회 불평등 등과 같은 실제적인 도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들의 입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인접 학문과의 학제적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한다
- ② 당위의 학문이라는 윤리학의 본질적 성격을 간과한다
- ③ 도덕 문제 해결을 위한 도덕 원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④ 규범 윤리학 이론과 도덕적 실천의 유기적 연관성을 간과한다
- ⑤ 도덕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의미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2.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대동강을 돈을 받고 판 김선달의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동강의 강물은 한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공유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보 또한 강물과 같은 것이므로 누구나 사용 가능해야 하며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갑

북청 물장수를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냥 흐르는 강물이 아닌, 물장수가 한강에서 퍼 온 물통 속의 강물을 삽니다. 이처럼 정보 또한 물통 속의 물과 같아서 누군가의 노력이 들어갔다면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을

- ① 갑: 정보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
- ② 갑: 정보의 사적 소유권은 자유롭게 이전될 수 있어야 한다.
- ③ 을: 정보는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공유 자산이다.
- ④ 을: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성립된다.
- ⑤ 갑, 을: 정보를 생산한 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


3.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하면 질서 정연한 사회란 그 구성원들의 선을 증진하고 공적 정의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정의의 원칙을 자기 사회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고 세계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기 전에 빈곤으로 인해 죽어갈 것이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므로 빈곤으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 ① 원조 대상자의 국적은 원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
- ② 원조는 전 지구적 차원의 윤리적인 의무로 정당화될 수 없다.
- ③ 원조 대상에서 질서 정연한 사회의 빈곤한 시민은 제외되어야 한다.
- ④ 원조는 인류의 공리 증진이 아닌 지구적 정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 ⑤ 원조의 최종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4. 다음 가상 대답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선생님께서서는 좋은 벗은 마음이 굳건하여 잘못을 하지 않지만, 나쁜 이들은 자주 변하기에 굳건한 마음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완전한 우애는 사람 됨됨이를 사랑하여 서로를 즐겁게 합니다. 이러한 우애는 서로에게 사랑받을 만함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완전한 우애를 위해서는 시간과 친교가 필요하겠군요. 그렇다면 쾌락을 위한 우애는 어떻습니까?



3

쾌락을 위한 우애도 서로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애는 즐거움이 목적이기에 즐거움이 사라지면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4

- ① 쾌락을 위한 우애나 완전한 우애 모두 서로에게 즐거움을 준다.
- ② 유덕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우애를 나눌 수 없다.
- ③ 좋은 벗은 서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④ 쾌락을 위한 우애는 서로 즐거움을 주는 한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 ⑤ 완전한 우애만이 서로의 선한 성품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5.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 대답>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늘날과 같은 ‘윤리적 공백’의 시대에는 구원의 예언보다 불행의 예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 기술 유토피아주의를 찬양하는 ‘희망의 원칙’이 아닌,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와 관련된 ‘공포의 원칙’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가상 대답>

리포터: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사상가: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를 가져야 합니다.

- ① 자연과의 상호 책임성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② 부모가 자녀에 대해 책임지는 것처럼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③ 자연에 대한 주인 의식을 토대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④ 과학의 무한한 진보를 바탕으로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 ⑤ 행위의 직접적 영향의 한도 내에서만 자연에 대해 책임지려는 자세

6.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본성에 따라 선으로 향하는 성향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본성에서 나온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는 원리에 따라야 한다.

<문제 상황>

A는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병으로 3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A는 연명 의료에 대한 의향서 작성을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신의 이익과 가족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판단하세요.
- ② 이상적인 담화 상황에서 합의된 결과를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 ③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도덕 원리를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 ④ 인간이 갖는 자기 보존의 자연적 성향을 고려하여 판단하세요.
- ⑤ 자연법의 원리가 아닌 스스로 수립한 도덕 법칙에 따라 판단하세요.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선왕(先王)이 예(禮)를 제정하여 사람들에게 귀함과 천함의 등급을 분별하게 하였다. 사대부의 자손이라도 예에 합하지 않으면 서민이 되어야 하고, 서민의 자손이라도 학문을 닦고 품행이 단정하여 예에 합하면 사대부가 되어야 한다.

을: 왕도 정치가 구현된 사회에서 농부와 목수와 기술자는 각자 생산물이나 재능을 교환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 힘을 쓰는 노력자(勞力者)와 마음을 쓰는 노심자(勞心者) 역시 각자의 수고로움으로 서로 기여한다.

- ① 갑: 예(禮)를 기준으로 삼아 사회적 역할 분담이 정해져야 한다.
- ② 갑: 사회적 신분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③ 을: 분업을 통해 사회적 직분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 ④ 을: 노력자(勞力者)는 생계가 안정되어야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다.
- ⑤ 갑, 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할 때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

8.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예술의 목표는 진리라는 생각 때문에 시(詩)만을 위한 시는 시적 품위가 결여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예술이란 본래 심미적 가치만을 추구하기에 시 그 자체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도 염두에 두지 않고 쓰인 시만이 진정한 시이다.

을: 예술의 사명은 신(神)의 세계, 즉 인간의 최고 목적인 사랑의 세계를 건설하는 일이다. 따라서 예술은 인류애가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되도록 교육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① 갑: 예술의 심미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에 의해 제어되어야 한다.
- ② 갑: 예술이 도덕적 진리를 추구할 때 심미적 가치가 더욱 고양된다.
- ③ 을: 예술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감정의 고양에 기여해야 한다.
- ④ 을: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 ⑤ 갑, 을: 예술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는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9.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선생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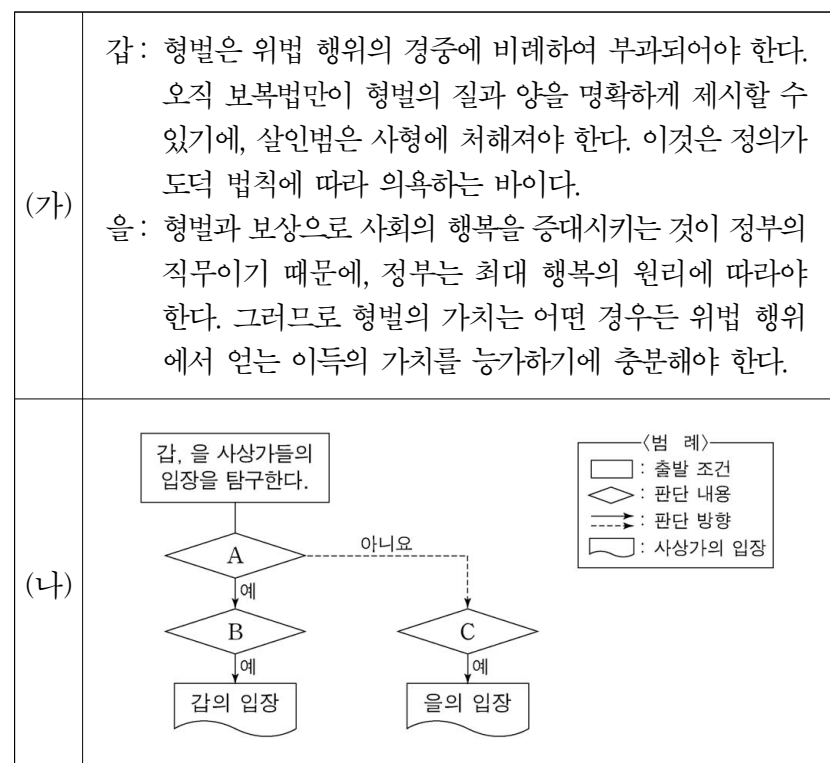
지난 편지에서 선생님께서는 개인의 이기심이 선의지에 의해 견제되고 있어 모든 집단은 조화를 이룰 것이라 하시며, 개인의 선의지 함양을 권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선생님께서는 집단 이기주의가 갖는 힘, 범위, 지속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를 순전히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단 간의 관계는 윤리적 이기보다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양심은 집단 간의 갈등을 부분적으로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 (후략) ...

<보 기>

- ㄱ.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이 갖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 ㄴ. 선의지는 정의 실현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을 통제해야 한다.
- ㄷ. 사회 정의는 사회적 억제와 힘을 통해 실현되어서는 안 된다.
- ㄹ. 사회적 협력이 아무리 확대되어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A: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정당화 가능한가?
- ㄴ. B: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전제하는 것인가?
- ㄷ. C: 형벌은 공리를 증진하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는 선인가?
- ㄹ. C: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려는 수단이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1.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어야 합니다. 질병 극복은 선이기 때문입니다.
 을: 네, 동의합니다. 하지만 치료를 넘어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치료 목적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갑: 치료를 넘어선 국가 차원의 우생학은 부당하지만 개인 차원은 다릅니다. 외모에 대해 성형의 자유를 지니듯이, 우리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질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닙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자질 강화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고비용 의술로 특정 계층만이 이용 가능해 생물학적 불평등을 낳고 이는 곧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① 질병 치료를 위한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② 치료 목적의 유전자 조작은 선을 산출할 수 있는가?
 ③ 국가는 치료를 넘어선 우생학적 유전자 조작을 해도 되는가?
 ④ 유전자 조작 기술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가?
 ⑤ 자질 강화를 위한 개인 차원의 유전자 조작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12.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늙은 말이나 개와 같이 오랫동안 봉사한 동물들에게 감사의 정(情)을 표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언제나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따름이다.</p> <p>을: 무당벌레와 진딧물의 관계와 같이 하나의 종(種)을 위한 선은 다른 종을 위한 선이 아닐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그 자신의 선을 가지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p> <p>병: 식용 송아지의 비참한 모습은 애처롭고 마음 아프게 한다. 도덕적 무능력자이지만 삶의 주체인 동물들의 도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p>
(나)	<p>—〈범례〉— A: 갑만의 입장 B: 병만의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ㄱ. A: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만 대우해서는 안 된다.
 ㄴ. B: 인간이 동물보다 본래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
 ㄷ. C: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비이성적인 개체도 존재한다.
 ㄹ. D: 생태계 그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3. 다음 글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자는 연구와 실험의 결과가 인류의 운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를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과학적 발견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몫이 아니다. 그것은 가치 판단의 문제로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자는 입증된 방법으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할 뿐이며, 오로지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자신의 연구에 책임을 다할 뿐이다.

—〈보 기〉—

ㄱ. 과학자는 연구 결과의 모든 활용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가?
 ㄴ. 과학자는 연구의 외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가?
 ㄷ. 과학자는 이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하는가?
 ㄹ. 과학자는 연구 주제의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고, 죽음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은 운명이다. 사계절이 변하듯이 기(氣)의 변화 과정에서 삶과 죽음이 바뀌는 것일 뿐이니 죽음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나) 오온(五蘊)의 새로운 구성이 태어남이고 그 해체가 죽음이다. 죽음은 현세의 업보에 따라 다음 세상에서의 태어남으로 이어진다. 삶과 죽음은 생멸(生滅)의 과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니 생사(生死)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 ① (가): 인(仁)의 구현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
 ② (가): 내세의 행복을 위해 현세의 욕망을 최대한 절제해야 한다.
 ③ (나): 죽음은 고통이 없는 생(生)으로 이어지는 윤회의 과정이다.
 ④ (나): 중생은 그의 오온이 해체되어도 생멸을 반복하게 된다.
 ⑤ (가), (나): 참된 지혜는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난 사후에만 얻어진다.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얻어져야 한다. 이들은 이 상황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 이 원칙들을 만족시키는 한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
 을: 어느 누구도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국가는 강압·절도·사기로부터의 보호, 계약 집행 등과 같은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차등의 원칙만 충족한다면 어떠한 분배 결과도 정당화된다.
 ㄴ. 갑: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는 경제학의 일반적 사실을 안다.
 ㄷ. 을: 분배 결과의 정당성은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근거한다.
 ㄹ. 갑, 을: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6. 다음은 신문 칼럼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오늘날 세계 각 지역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 폭력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서양 사상가의 가르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타 종교인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참된 종교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다. 참된 종교는 영혼의 내적 확신에 기초하는데, 이러한 내적 확신을 폭력과 같은 외부적 힘으로 강제하는 것은 종교의 사명은 물론 인간 이성에도 어긋난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종교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을 인식해야 한다. ...-(후략)...

- ①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불필요하다는 것
- ② 영혼의 내적 확신이 구원과 무관하다는 것
- ③ 종교적 박해는 불합리하므로 부당하다는 것
- ④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종교도 참된 종교라는 것
- ⑤ 종교적 불관용만이 이성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

17.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남편과 부인 간에는分別이 있어야 하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간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
(나)	섬기는 일 중에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가장 큰 섬김에는 물질적 봉양[養口體], 정신적 공경[養志],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입신양명(立身揚名)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은/는 개나 말을 잘 먹여 기르는 것과는 다르다.

- ①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상경여빈(相敬如賓)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 ②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상부상조(相扶相助)로 완성되는 것이다.
- ③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는 백년해로(百年偕老)로 완성되는 것이다.
- ④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군이충(事君以忠)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 ⑤ 몸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불감훼상(不敢毀傷)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어떤 국가에서 그 구성원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과 고통이 극심하지만 그 국가의 어떠한 세력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경우, 정의로운 전쟁을 통한 인도주의적 개입이 요구될 수 있다.

을: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대해 폭력으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이다. 한 국가에 대한 폭력적 개입은 결국 모든 국가의 자율성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① 갑: 전쟁은 도덕적 비판의 대상일 뿐이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 ② 갑: 인권 침해만으로는 정당한 전쟁의 조건이 완비되지 않는다.
- ③ 을: 평화 조약이란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지에 불과하다.
- ④ 을: 영원한 군비 경쟁을 통해서만 영구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 ⑤ 갑, 을: 전쟁은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19.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보장해 줄 완전한 헌법을 제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절차도 찾기 어렵다. 또한 헌법에 따라 제정된 법이 정의로운 것이기를 보장해 줄 완벽한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헌법이 정의로우며 그로부터 이익을 받고 또 받을 예정이라면, 우리는 다수자가 제정한 법이 부정의하다 할지라도 그에 따라야 할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대체로 질서 정연한 사회 안에서,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이 심각한 정도로 부정의할 경우, 우리는 시민 불복종을 고려하게 된다.

<보 기>

ㄱ.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을 보장할 수 없다.
 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가 존재할 수 있다.
 ㄷ. 시민 불복종은 부정한 정치 체제에 항거하는 것이다.
 ㄹ.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그림의 강연자가 공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시적 소비는 자신의 부와 명성을 타인에게 명백하게 증명하려는 경쟁적인 소비 행위입니다. 명성의 관점에서 사회 구조의 최상부에 위치한 유한계급의 생활 예절과 가치 기준들은 사회 구조의 최하층까지 강압적인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그 결과 각 계급의 구성원들, 심지어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빈민조차도 모든 관습적인 과시적 소비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화를 축적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욕망은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못합니다. 그 욕망은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비교에 바탕을 둔, 명성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 ① 유한계급의 소비 행태는 사회 구조 전반으로 확산되는가?
- ② 사회 구조의 최상위 계급만이 과시적 소비를 욕구하는가?
- ③ 유한계급은 소비를 통해 자신의 재력을 은폐하고자 하는가?
- ④ 사회의 각 계급은 상위 계급의 소비 행태에 대해 무관심한가?
- ⑤ 사회의 전체적인 부가 증대되면 과시적 소비의 욕망은 사라지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